

“만공스님, 독립유공자 선정돼야”

수덕사·선양회, 보훈처에 요청

광복 70주년을 맞아 근세 한국불교의 선을 중흥시키고 민족정신을 지키며 올곧은 수행을 이어온 만공스님(사진)에 대해 독립유공자 포상과 독립운동 인명사전 등재가 추진되고 있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정묵스님)와 경허·만공선양회(회장 웅산스님)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불교 정책 강행’에 항거해 조선총독부에 일침을 가한 만공스님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해 줄 것을 국가보훈처에 요청했다.

만공스님은 일제강점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기치 아래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일본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조선총독부의 수행전통을 지키기 위해 일본제국주의의 불교계 침탈에 분연히 맞선 것이 대표적인 행적이다.

스님은 일제의 조선 무단통치가 절정에 이른 1937년 3월11일 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열린 조선불교 31본산 주지회의에서 총독에게 일갈을 가했다. 미나미 조선총독과 31본산 주지, 13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조선불교진흥책’을 논의했는데, 만공스님은 마곡사 주지 자격으로 참여했다. 소위 ‘조선불교진흥책’은 조선불교를 중흥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일제의 식민통치를 강화하는데 불교를 이용하겠다는 저의를 갖고 있었다. 1929년 조선 주둔군 사령관을 역임하고 1936년 제7대 조선총독으로 임명받은 미나미는 조선인의 창씨개명과 일본어상용 등 억압한 방법으로 민족문화말살의 무단정치를 강행했던 인물이다.

이날 회의에서 미나미 총독은 “전 데리우치 총독이 사법(寺法)과 사찰령(寺刹令) 등을 제정하는 일들을 하여 조선불교 중흥에 공이 크다”면서 “앞으로 조선불교는 일본 불교에 종속해야 할 것”이라는 등 일제



일제 불교정책에 굴복하지 않고 ‘상구보리 하화중생’ 기치 아래 민족의식 고취위해 부단히 노력 ‘독립운동 인명사전 등재’도 추진

“수행전통 수호·정교분립 선언 윤봉길 안중근 의사 폭탄투척 총알 항거보다 더 큰 위력 가져” 9월 ‘대선사의 위상’ 학술대회

의 침략정책에 따른 조선불교 말살을 획책하는 망언을 했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총독의 발언이 설사 부당하더라도 누구하나 쉽게 말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만공스님은 “전 데리우치 총독은 우리 조선 승려로 하여금 일본 승려를 본받아 계율을 파하게 한 조선불교에 큰 죄악을 지은 사람”이라면서 “마땅히 지금은 무간아비지옥

에 떨어져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경책했다. “이런 자들을 지옥에서 구하고 조선 불교를 진흥시키는 길은 오직 조선 승려들이 수행을 엄히 하고 용맹정진하여 견성성불하는 길밖에 없다”며 “총독부는 조선불교를 간섭치 말고 우리 조선 승려에게 전부 맡기는 것만이 유일한 진흥책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와 함께 만공스님은 1941년 3월 서울 선학원에서 열린 고승대회에 참석해 일본의 식민불교정책 강행에 항거해 조선 전통불교를 굳게 지킬 것을 선언했다. 또 1942년부터 간월암에서 민족해방과 자주독립을 위해 바깥출입을 삼간 채 천일기도를 올린 바, 회향 3일 후에 해방을 맞이할 정도로 스님의 독립 열망은 강했다. 수덕사에서 단 한명도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것이 그 증거다.

경허·만공선양회장 웅산스님은 “만공선사의 정교분립 선언은 윤봉길 의사와 안중근 의사에 의해 투척됐던 폭탄이나 총알보다 못할 것이 없는 위력을 가진 것”이라며 “내선일치와 창씨개명의 밤이 다 어여가던 때에 술을 열고 찬물을 부어 그 밤을 설게 만든 만공선사의 사자후는 그 어느 항일항쟁 못지않게 조선인의 자존심을 드높인 사건으로 국가에서도 그만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수덕사 주지 정묵스님은 “만공스님이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만공스님을 선양하는데 앞장서온 은사(법장) 스님의 10주기 추모대례를 맞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덕사와 경허·만공선양회는 오는 9월20일 경내 황하루에서 일제강점기 만공대선사의 위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만공스님의 독립선양사상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시영 충청지사장 isy@ibulgyo.com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덕문스님(사진 오른쪽)이 지난 2일 대구불교총연합회와 본말사에서 모은 네팔 구호 기금 2190만500원을 아름다운동행 이사장인 총무원장 자승스님(가운데)에게 전달했다.

네팔 ‘대지진 구호’ 온정 석 달째 지속

동화사 대구불교聯 2190만500원

불교신문 독자 직원도 1200여만원

네팔 지진 두 달여가 지났지만 피해 재건 및 복구를 돕기 위한 불교계 온정의 손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덕문스님)는 지난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에 네팔 구호기금 2190만500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대구불교총연합회 신도장학회와 동화사 본·말사 스님과 신도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것이다. 주지 덕문스님은 “본사와 말사 신도들이 함께 나서 기금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구호 기금을 마련하느라 고생했다”며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본지(사장 영배스님) 또한 아름다운동행에 네팔 구호기금 1202만5560원을 전달했다. 지진피해를 입은 네팔을 돕기 위해 본지는 지진 직후인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모금 계좌를 개설해 긴급구호기금을 모으려왔다. 독자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1200여 만원의 기금이 모였다. 부산 관음정사가 228만원, 천안 각원사신도회가 160만원, 부산 원오사가 100만원을 보내왔다. 적게는 몇 천원부터 몇 만원까

지 마음을 보내온 익명의 기부자들도 있었으며 본지 임직원들도 십시일반 모연에 동참했다.

전달식에서 사장 영배스님은 “독자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동참해줬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어려모로 힘든 상황에서도 기금을 마련하느라 고생했다”고 화답했다. 이외에도 지난 1일 사회복지법인 인덕원과 삼천사 대표해 인덕원 상임이사 도광스님이 네팔구호기금으로 써달라며 500만원과 쌀 500kg, 여성류류 1000여벌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보내왔다. 네팔 외에 소외계층에도 지원될 예정이다.

기금은 조계종 아름다운동행과 총무원 사회부 등을 통해 네팔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7억원이 넘는 기금이 모였었다.

하정은 이경민 기자

불교신문 모연 동참자 명단 (날짜순)

신란주 이재순 박민진 홍정숙 김광준 조미양 파라미타 불회사 김숙현 윤기현 김영선 오순기 김경애 김애정 남정기 임성빈 신건호 형남기 정성문 법전사 김민대 하은자 황보현 오정닉 김춘연 김명순 선서스님 신미애 서주영 주경덕 오현숙 양구관음선원 하영란 이재운 이승희 전미경 채영수 김애희 정상식 이원열 관음정사최갑성 부산원오사 김주현 최진숙 이재오 각원사신도회

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의현스님 재심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는 29일 열리는 5차 100인 대중공사에서 재심호계원의 의현스님 징계 재결정 관련 내용이 의제로 다뤄진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공동 추진위원장 도법스님)는 지난 6월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화쟁위원회 집무실에서 제6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는 5차 대중공사 의제로 ‘사부대중 공동체,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다룰 예정이었으나, 6월18일 재심호계원이 벌인 징계를 받았던 전 총무원장 의현스님을 공권정지 3년으로 재결정한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대중공사 100인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5차 대중공사에서 이를 다루기로 했다. 재심호계원의 판결을 두고 화합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종단 개혁의 정신을 부정한 판결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등 불교계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100인 대중공사에서 재심호

계원의 판결 내용과 더불어 1994년 종단개혁에 대한 평가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구체적인 의제와 논의 방법은 5차 대중공사 개최 전까지 의제기획팀 회의를 열어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불교 대중공사 추진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1시 전주 전북불교회관에서 ‘희망찬 미래를 위한 전북불교의 과제’를 주제로 대중공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5차 대중공사 ‘의제’로 선정
구체적 방법 기획팀서 준비

지흥·호성스님 등국대 이사 선출
보광스님 징계, 시효 지나 ‘기각’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신입 이사로 조계종 중앙총회위원장 지흥스님과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이 각각 선임됐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일연스님)는 지난 6월30일 동국대 분당병원에서 292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회 중앙총회에서 복수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정령스님 후임으로 지흥스님이, 호성스님 후임으로 호성스님이 다시 선임됐다. 신입 이사의 임기는 교육부 승인일로부터 4년이다. 반면 영담스님 후임으로 추천된 돈관,

덕조스님의 경우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개방이사로 확보한다는 내용의 정관개정 이후 다시 선출할 예정이다.

한편 보광스님에 대한 교원징계의결요구에 관한 사항은 기각됐다. 이사들은 양영진 교무부총장 명의로 최근 제출된 보광스님 관련 징계 요구 건의서에 “해당 논문이 발표된 게 2010년으로 정관 66조2 ‘징계사유’의 시효’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에 따라 3년이 지나 시효가 경과됐고,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예비조사 본조사 거쳐서 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 대학의 연구진실성윤리위원회로 회송하기로 결정했다.

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Silkroad
tour in your own life

Dalai Lama's Dharma Teaching

제13회 달라이라마 특별법회



자비심의 가르침을 생생히 보여주는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법문이 2015년 9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인도 북부 다람살라 남갈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매년 법회를 시작할 때,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법문을 열어갑시다. 천여분의 티베트 스님과 수많은 대중이 동참하는 법회를 통해 설하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가르침은 불자로서 신행의 목표점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동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끔 도와줄 것입니다. 소중한 가르침이 펼쳐지는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장 소 : 인도 다람살라 남갈사원 대법당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여수 석천사

■ 주 관 :  티벳대장경역경원
Translation Institute for Tibetan Buddhist Canon

※ 행사일정

A 팀. 달라이라마 특별 법문과 인도성지 순례 14일 (8월 31일~9월 13일) - 299만원
인천-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가르-바이살라-쿠시나गर-룸비나-기원정사-라니우-다람살라-델리-아그라-델리-인천

B 팀. 달라이라마 특별 법문 8일 (9월 5일~9월 12일) - 229만원
인천-델리-다람살라-델리-인천

C 팀. 달라이라마 특별 법문과 네팔 봉사 11일 (9월 2일~9월 12일) - 279만원
인천-카트만두-델리-다람살라-델리-인천

※ 전화를 주시면 상세한 일정 및 안내문을 발송해드립니다.

※ 상기금액은 행사 공양금 3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접수 마감 : 7월 31일까지(선착순)

(주)실크로드여행사 TEL 02)720-9600 FAX 02)734-9937
서울 종로구 우정로 48, 9층(S&S빌딩)